

「直指」의 전존 경위

황 정 하*

1. 머리말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이하 직지)」를 1374년에 여주 취암사에서 편저한 경한(호가 白雲, 1298~1374)은 원중국사 보우(太古, 1301~1382)와 선각왕사 혜근(懶翁, 1320~1376) 등과 함께 고려말 3대 선사 중에 한 분이였다. 경한은 전라도 고부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불가에 입문하였다. 그리고 1351년에 중국의 석옥청공선사로부터 법을 전수 받았고, 그로부터 손수 쓴 『불조지심체요절』을 한권 받아 가지고 귀국하게 된다. 그리고 인도의 지공선사에게도 법을 물어 1353(고려 공민왕 2)년 1월 17일 마음을 밝혀 도를 깨달았다. 경한의 나이 75세인 1372년 9월에 성불산에서 145가의 어록 등을 가려 뽑아 상·하권으로 「직지」를 초록하고, 1374년에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하였다.

이에 그의 제자 석찬과 달잡이 비구니 묘덕의 시주를 받아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

활자로 「직지」를 간행하였다²⁾. 그리고 그가 입적한 여주 취암사에서도 법린, 자명, 혜전이 1378년 6월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즉,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하고, 11개월 후에 취암사에서 다시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다.³⁾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한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직지」가 1377년에 청주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이후 조선후기에 프랑스 외교관 Collin de Plancy(葛林德, 1853~1922)에 의해 수집되어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최초로 공개 전시되고, Maurice Courant(古恒, 1865~1935)의 『한국서지』에 게재, 드루오(Hôtel Drouot) 경매장에서 경매와 Henri. Vever(1854~1943)가 소장하였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 전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황정하,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청주고인쇄박물관, 전화: 043)200-4560, FAX:043)200-4569, E-mail: jikji@korea.kr

*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본 논문은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直指」의 傳存 經緯」(2006)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백운화상이 75세에 노안을 비벼가며 法鄰의 도움을 받아 1372년 9월에 과거의 7불과 인도의 28조사, 중국의 110선사의 말씀을 가려 뽑아 상·하권으로 편저한 책이다.

2) 「直指」의 간행기록 참조.

宣光七年丁巳 七月 日 淸州牧外 興德寺 鑄字印施 緣化門人 釋璨 達湛 施主 比丘尼 妙德

3) 현재 흥덕사본은 하권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취암사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영광 불갑사 등에 소장되어 있다.

4) 「직지」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所藏 經緯에 대한 다음의 先行 研究가 참고가 된다.

김기태, 「「直指心經」의 存續經緯에 대한 研究」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9집 제1호, 1995.

남윤성, 『창사 36주년 다큐멘터리 -직지의 최초 발견자 콜랭 드 플랑시-』, 청주문화방송, 2006년 7월 31일 방송.

2. 「직지」의 수집과 전래 경위

2.1 C. Plancy의 「직지」 수집

폴랭 드 뵘랑시⁵⁾는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받고, 동양어학교의 중국어과 교수인 끌렉 초우스키(Kleczkowski) 공작의 학생으로 중국어과를 1877년에 졸업⁶⁾하고, 중국 북경주재 프랑스 공사관 통역에 임명되어 6년 동안 중국에서 근무를 하였다.



사진 1. Collin de Plancy

다니엘 부세, 「韓國學의 先驅者 모리스 꾸랑(상, 하)」 『東方學志』 제51집, 제52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6, 1987.

李世烈, 「《직지》가 프랑스로 간 經緯에 對한 考究」, 未刊行(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05.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동향」 『국학연구』 제2집, 한국국학진흥원, 2003.

千惠鳳, 『高麗鑄字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解題』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3.

黃正夏,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直指」의 傳存 經緯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所藏을 중심으로-」 『古印刷文化』 第13輯, 淸州古印刷博物館, 2006.

- 5) 빅토르-에밀-마리-조세프 폴랭 드 뵘랑시(Victor-Emile-Marie-Joshph Collin de Plancy : 1853-1922)는 프랑스 파리 남동쪽 트루아(Troyes)지방의 뵘랑시(Plancy) 마을에서 59세의 아버지 자크 폴랭 드 뵘랑시(Jacques Collin de Plancy)와 27세의 어머니 Gusta Clarisse Bradier 사이에서 1853년 11월 22일 출생하였다.
- 6) 동양어대학은 1669년에 설립되어 1795년에 정식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주로 동양에 파견되는 통역관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뵘랑시는 1877년 중국어과 2회 졸업생이다.

1886년 6월에 전권대신 한성판윤 김만식(1834~1900)과 조르주 코고르당(Francois George Cogirden, 戈可當)이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함에 따라 1887년 4월⁷⁾에 뵘랑시는 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 프랑스 정부는 1887년 11월에 뵘랑시를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로 임명하였으며, 그는 1888년 6월에 서울에 도착, 부임하여 1891년 6월까지 서울에 주재하였다. 뵘랑시는 1890년 5월 프랑스와 게랭(Francois Guérin, 業國麟) 후임 통역으로 서울에 온 모리스 꾸랑에게 한국에서 간행된 모든 서적의 목록을 만들도록 권유하는 한편, 자신도 꾸랑과 함께 약 13개월 동안에 『한국서지』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꾸랑이 1894년 11월 동경에서 저술한 『한국서지』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저술은 이 일이 착수될 때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폴랭 드 뵘랑시씨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작업에 대한 애초의 발상도 그의 것이며, 많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훌륭한 조언을 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⁸⁾

뵘랑시가 1888년부터 1891년까지 1차로 한국에 부임해 있는 동안에 수집한 고서를 3차례에 걸쳐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하였다.⁹⁾ 그리고

7) 『高宗實錄』 24卷. 高宗 24年 4月 9日 丙申條.

交涉通商事務衙門 以今日未時 臣等與大法國使臣葛林德 將上年所議條約互換啓

8) 모리스 꾸랑 原著, 李姬載 翻譯, 『韓國書誌』 一潮閣, 1997. pp. xi ~ xii.

9) 넬리 쾰롬 동양어학교 도서관 관장에 따르면, 1872년 동양어학교의 요구에 의해 국가는 법령에 선포했고 프랑스 동양어학교는 각국에 파견나간 외교관들로 하여금 국가도서관, 특히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질 서적을 사오도록 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서적에 큰 관심을 가졌던 폴랭 드 뵘랑시는 정기적으로 많은 서적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특히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한다. 남윤성, 『앞의 방승』, 2006년 7월 31일 참조.

1891년 6월부터 1895년 12월까지 일본에 전속되어 5년간 근무하였으며, 1895년 12월에 주한공사 겸 총영사로 임명되어, 1896년 4월부터 두번째 서울에서 근무하였다.¹⁰⁾ 그리고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1899년부터 1900년까지 휴가를 하고 프랑스에 머물렀으며, 1902년에는 파리 만국박람회를 도와준 공로로 고종으로부터 특별히 훈 1등의 태극 훈장을 수여 받았다.¹¹⁾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프랑스공사관이 철수되면서 뽀랑시는 태국 방콕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1907년 30여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감하였다. 뽀랑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물품들(뽀랑시 컬렉션)을 1911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드루오경매장에서 883종을 경매 처분하였다.¹²⁾ 이 경매에 관한 기록(장부)은 파리 시립 고문서실(Archives Municipales de Paris)에 보관되어 있으며, 각 물품에 관한 구입자의 이름, 연번, 경매 책자에 번호, 가격 등이 적혀 있다.¹³⁾

뽀랑시는 1922년에 파리 스파르 뒤 크르와지(Paris, 10, square du croisic) 10번지 그의 자택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해 10월 28일 토요일 9시에 성 프랑스와-자비에(St. François-Xavier) 성당에서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¹⁴⁾

뽀랑시는 한국과 프랑스가 국교를 맺은 후 외교관으로 두번에 걸쳐 서울에 머물면서 확고한 감식력과 폭넓은 교양으로 한국의 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집품은 1377년(고려 우왕 3)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 하권이다. 그런데 당시에 「직지」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의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뽀랑시가 「직지」를 비롯한 고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였을까? 그것은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 1842~1893)의 기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폴랭 드 뽀랑시는 어느 프랑스 여행자가 매일 아침 프랑스 공사관에 자리 잡고서 이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파리 스파르 뒤 크르와지(Paris, 10, square du croisic), 10번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1922년 10월 28일 토요일 9시 성 프랑스와-자비에(St. François-Xavier) 성당에서 그의 장례식이 거행된다.

출판인으로 잘 알려진 자끄 폴랭 드 뽀랑시의(Jacques collin de Plancy) 아들이었던 빅토르 에밀 마리-조세프(Victor-Emile-Marie-Joseph)는 1853년 11월 23일에 태어났다. 동양어학교의 중국어 교수 끌렉쵸우스키(Kleczkowski)공작의 학생으로 학교를 마치고, 1877년 11월 23일 북경에서 통역관을 시작으로 그의 모든 외교관 생활을 극동지역에서 보내게 된다. 그는 1887년 4월 8일에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루어진 우호조약 비준서를 교환하는 임무를 맡고 한국에 파견되고, 그 해 11월 9일 서울의 영사로 임명된다. 1888년 12월 22일 일등 영사로 진급한다. 그는 1890년 7월 12일 북경의 일등 서기관이 되고(비취임), 1890년 8월 26일 도쿄로 옮긴다. 방콕에 특파되어 전권공사로 지낸 이후, 프랑스의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여 받았으며, 시암(태국)에서 마지막 외교관 생활을 한다. 빅토르는 1879년 동양어학교를 위해 브레트슈나이더 박사(Dr. E. Bretschneider)의 저서 “북경과 그 주변의 고고역사학적 연구”를 번역하고, 그의 소장품들을 트로카데로 박물관(Musée Trocadéro), 세브르 박물관(Musée Sèvres),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등 여러 곳에 기증했다. 그에겐 친구들만 필요할 뿐이다. 꼬르디에(H. Cordier)

10) 『大韓季年史』 卷2. 丙申 建陽元年 4月 24日條

同日法國判事大臣兼總領事葛林德 入京城.

11) 『高宗實錄』, 高宗 39年 10月 20日 詔曰 法國公使葛林德 曾以換約全權公使 已敍勳二等 而亦有博覽會襄助之效 特陞敍勳一等 賜太極章.

12) Collection d'un Amateur(Mr. Collin), *OBJETS D'ART de la Corée, de la Chine et du Japon*-, Paris, Emest Leroux Editeur, 1911. 883점의 경매품 가운데 700여점이 한국 것이었다.

13) 파리시립 고문서실 문서번호 D-60E3-83번, “Procès-verbal de la vente(경매기록)”, 27 an 30 mars 1911.

14) 등보 부고란에 실린 꼬르디에(H. Cordier)의 뽀랑시에 대한 추도문 참조. *Young Pao*, XXI, 1922. p. 445.

“전권공사를 역임했고,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의 수여자였던 빅토르 폴랭 드 뽀랑시는 그의 자택,

물건의 견본을 구입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떼를 지어 오면 조선 민속학적 견지에 따라 물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내 임무다. 외국에서 온 상품은 가차 없이 제외된다. 다행히 폴랭 드 뽀랑시는 그가 매일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선인 비서들을 내 밑에 두어 일을 돕게 해주었다. 이들이 나로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가격 흥정도 맡아 한다. 상인들은 때로는 엄청난 가격을 부르거나 이쪽의 제의를 거절하곤 하지만 흥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날이면 다시 와 전날 거절했던 조건을 수락하니깐.

오후에 우리는 불어를 하는 비서들과 함께 서울을 누비며 민속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눈에 띄는 대로 사들인다.”¹⁵⁾

즉, 뽀랑시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자료의 수집을 위해 통역인들의 도움을 받아 「직지」를 비롯한 고서들을 수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뽀랑시에 의해 「직지」가 수집된 시기는 꾸랑의 『한국서지』 보유판 머리말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보유판의 출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현 주한 프랑스 전권공사인 폴랭 드 뽀랑시 씨는 1888~1891년 사이(뽀랑시가 1차 한국에 머물렀던 시기)에 이루었던 장서를 완결시키기 위해 그의 최근 체류시 새로운 일련의 한국도서를 모았다. 이 첫 번째 장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리의 동양어학교에 기증되었으며, 여러 수집을 통해 분량이 더욱 풍부해졌다. 지난 해(1899년) 프랑스에 도착한 도서 중에 한국 인쇄사에 대한 가장 흥미 있는 것들은 조선관(한국관)에서의 만국박람회(1900년)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들로, 이 일련의 도서들이 거의 전부,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박람회를 전후하여 동

양어학교에 기증되었으며, 이는 현존하는 한국 장서로서는 가장 많은 양의 것이다.”¹⁶⁾

꾸랑의 기록으로 보아 뽀랑시가 「직지」를 수집한 시기는 2차로 조선에 머물던 시기 중으로 꾸랑의 『한국서지』 1, 2, 3권이 완성된 1896년 이후부터 파리 만국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시기로 보인다. 1888년에서 1891년 사이 1차 부임때 수집한 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꾸랑의 『한국서지』 1, 2, 3권에서 소개하였고, 동양어학교에 기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서지』를 완결시키기 위해 2차 부임시기 중에 수집한 자료를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꾸랑으로 하여금 책들에 대해 검토를 부탁하고 해제를 하여 『한국서지』 보유판을 출판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지」의 수집 시기는 『한국서지』 1, 2, 3권에 수록되지 않고, 보유판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1896년 이후부터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휴가를 떠난 1899년 사이가 된다.

뽀랑시는 「직지」를 수집하여 책의 표지와 속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표지]

“주조된 글자로 인쇄된 책으로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한국 책. 연대 = 1377년”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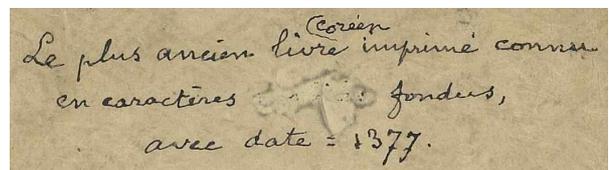


사진 2. 표지에 있는 뽀랑시의 기록

15) 샤를르 바라는 탐험가로 1888년과 1889년에 걸쳐 프랑스 문교성에 의해 민속연구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으며, 그가 조선에서 수집한 고서와 예술품은 파리의 기메(Guimet)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니엘 부세, 「앞의 논문(上)」, 1986. pp.157~1. 재인용.

16) 모리스 꾸랑 原著, 李姬載 翻譯, 『앞의 책』 一潮閣, 1997. p.765.

17) 「직지」 책 표지의 表題 오른쪽에 뽀랑시가 펜으로 “Le plus ancien livre coréen imprimé connu en caractères fondus, avec date = 1377”라고 세 줄에 걸쳐 기록하였다.

[간지]

“불교 교리 내용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한국 인쇄본.”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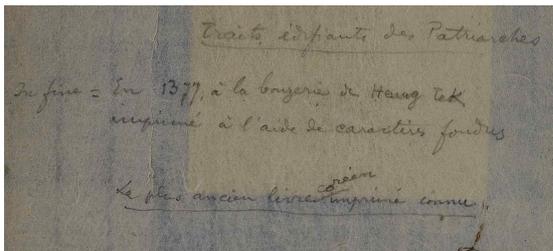


사진 3. 간지의 기록

빨랑시는 1377년에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 가장 오래된 책으로 보았다. 이것은 간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빨랑시는 자신의 한자 이름인 葛林德의 ‘葛’자를 가운데 두고 그 밑에 반원형으로 ‘EX LIBRIS COLLIN DE PLANCY’라는 장서표를 인쇄하여 속지 안쪽 면 중앙 위쪽에 붙였다.¹⁹⁾ 즉, 「직지」는 빨랑시가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던 고서임을 이 장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葛’자 위에는 연필로 “한국 활자본으로 가장 오래된 책, 1377년”이라 적혀 있고, 또한 1911년 드루오경매장에서 경매한 no 711의 경매번호가 적혀 있다.²⁰⁾ 아랫부분에는 연필로 B.C. no 3738²¹⁾이라고 꾸랑이 지은 『한국서지』의 번호가 적혀 있다.

18) 책의 간지에는 Traits edifiant des Patriarches En 1377, a la bonzerie de Heung Tuk imprime a l'aide de caracteres fondus. Le plus ancien livre coréen imprime connu.라 연필로 기록하였다.

19) 빨랑시가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한 고서에도 같은 장서 표시가 붙어 있다.

20) Le plus ancien livre imprimé no 711 coréen caractères Daté 1377

21) B. C. 3738이란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 보유판 (Supplément a La Bibliographie Core'enne)에 소개된 「직지」의 번호이다.



사진 4. C. Plancy 장서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빨랑시는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2차에 걸쳐 약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외교적인 활동 이외에 한국의 고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대부분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는 알 수 없으나, 「직지」를 비롯한 883종은 경매처분을 하였는데, 총 경매가격이 34,390프랑²²⁾이었다. 이는 아마도 1907년에 30여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감하고, 4년이 지난 1911년에 노후를 대비하여 소장 자료를 경매로 판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2 Paris 만국박람회에서의 「직지」 전시

파리 만국박람회는 1900년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서구 열강과 교류에 노력했던 고종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대규모 국제 행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893년 5월 7일 이폴리트 브랑땡 주한 프랑스

22) 「직지」의 경우 1911년에 180프랑에 경매되었는데, 정상천 박사(외교통상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프랑스에 확인한 바, 2006년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64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1프랑은 3,555원이 되는데, 피리시립 고문서실에 보관된 빨랑시 경매한 것은 총 34,390프랑이었다. 이를 환산하면, 122,256,450원이다.

남윤성, 『앞의 방송』, 2006년 7월 31일, 정상천 박사 인터뷰 참조.

공사는 파리 외무부에 공문을 보내 “조선의 고관들과 고종이 만국박람회를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을 대표하여 왕가의 일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고했다. 구한국외교문서에는 1896년 1월 프랑스 서리공사 르페브르가 1900년 4월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조선을 공식 초청했으며, 고종이 흔쾌히 허락했다고 기록돼 있다.

1897년 1월 박람회 사무국과 다리 역할을 할 프랑스 주재 특사 및 전권공사로 민영환이 임명된 데 이어 1898년 8월 대표단 명단이 발표하기도 했다. 후에 수정된 명단에 따르면, 명예위원장은 종2품 관원이었던 민영찬, 위원장은 샤를르 루리나 파리주재 총영사였다. 1899년 6월 3일자 독립신문에는 재정후원자 트레몰네가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품을 출품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한국은 샹드 마르스(Champ-de-Maes) 서쪽 쉬프렌(Suffren)로에 한국관이 세워졌다.

1900년 1월 재정후원자 드 글레옹 남작이 갑작스럽게 사망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후임자 미르렐 백작이 건물을 하나로 줄이고, 건축은 외젠 페레가 맡았다.

당시 ‘라 퐁테리 티포그라피’ ‘르 프티 주르날’같은 신문 잡지의 기사들도 악기, 자개 공예품, 그림, 장롱, 도자기, 자수, 의복 등 전시된 귀중한 소장품과 토속품들은 Coree란 나라의 자원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특히 기자들은 한국 인쇄술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전시한 진열대 앞에 한동안 멈춰 섰다. 콜랭드 뽀랑시 공사가 구입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꾸랑은 파리 만국박람회에 한국관을 소개하는 『1900년, 서울의 추억』²³⁾이란 팜플렛을 만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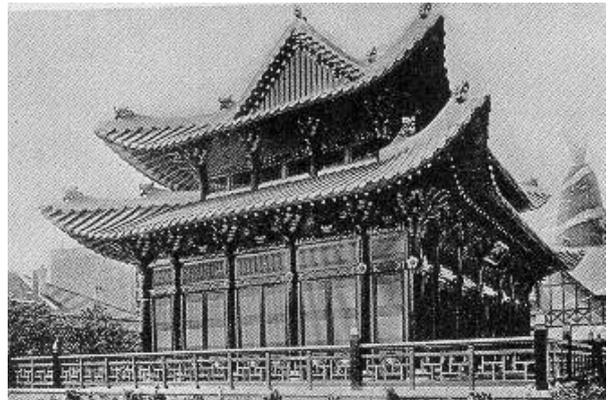


사진 5.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는데, 대한제국에서 대표위원으로 파견한 민영찬의 사진과 함께 뽀랑시 사진이 게재하였다. 꾸랑은 한국관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옛 인쇄문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에게 한국에 관한 책들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 남아 있다. 여러 개의 진열장은 고서를 전시할 수 있도록 배당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고서는 한지를 사용하는데 두껍고, 질기고,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광택이 없고, 때로는 윤이 나는, 상아색을 띄고 있는 종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책의 크기(판)가 크고, 세련되고, 수수하고, 눈을 즐겁게 하며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글자들로 가득찬 전체적 모습(판짜기 형식)이다. 또한 노골적이고 장중하지만, 종종 아주 단순하고 우아한 삽화들이 들어 있는 책들이 있다. 나는 이러한 고서의 진열품들이 몇몇 애서가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싶다. 대중은 결국 지금까지 한국에 인쇄소가 있고 문학이 번창하고 존재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는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모리스 꾸랑, 『한국에 관한 참고문헌 -한국 문학에 관한 일람표』, 파리, 에르네 르루, 1891~1896. 3권 8절판) 이 주제에 관하여 반복할 장소가 아니다. 나는

pavillon coréen au Champ-de-Mars, Paris, Exposition universelle, Imp. de la Photo-Couleur (s.d.), 1900, in-fol (21×30 cm), VIII p. et pl. 이진명, 『앞의 논문』, 2003,註 24) 재인용.

23) Courant, Maurice, 1900, *Souvenir de Séoul, Corée, Le*

단지 한국인들이 10세기 이전에 목판 인쇄(Planches graves)를 하였다는 것과,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 활자인 태종 3년(1403, 계미자)과 아마 이보다 더 일찍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활자, Types mobiles)를 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대부분 꼴랭 드 빨랑시에 의한 동양어학교의 것들과 같은 유럽인들의 수집품들에는 한국의 수많은 재미있는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²⁴⁾

라고 하였다.

한편 꾸랑은 『한국서지』 보유판을 1901년에 출판하면서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현(1901년) 주한 프랑스 전권공사인 꼴랭 드 빨랑시씨는 1888~1891년 사이에 이루었던 장서를 완결시키기 위해 그의 최근 체류시 새로운 일련의 한국도서를 모았다. …(중략) … 지난 해(1900년) 프랑스에 도착한 도서 중에 한국 인쇄사에 대한 가장 흥미있는 것들은 조선관(한국관)에서의 만국박람회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들로, 이 일련의 도서들이 거의 전부,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박람회를 전후하여 동양어학교에 기증되었으며… (후략).²⁵⁾

한편, 프랑스 역사예술고고학 학회지에서는 1902년 “옛날 종이”라는 이름의 학회지에는,

“꼴랭 드 빨랑시의 개인 소유인 「직지」는 1377년 한국의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이며, 금속활자 발명은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한국에서 있었다.”²⁶⁾

라고 하였다.

이상의 상황으로 보아 빨랑시에 의해 수집된

「직지」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되고, 1901년에 꾸랑이 『한국서지』 보유판을 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 M. Courant의 『한국서지』 게재

모리스 꾸랑은 1865년 10월 12일 프랑스 파리의 프랭클린(Franklin)街 6번지에서 국방성의 서기직인 아버지 샤를르 이지도르 꾸랑(Charles Isidore Courant : 1826~1888)과 어머니 마리 꼬스나르(Marie Cosnard : 1835~1907)와의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사진 6. M. Courant

꾸랑은 1883년 파리대학 법대를 입학하여 1886년에 졸업하였는데, 그 사이 1885년에 동양어학교 중국어와 일본어 강의에 등록하여 1888년에 두과를 모두 졸업하면서 그 해 9월에 북경주재 프랑스 공사관 통역관실습생으로 파견되었다가 아놀드 비씨에르(Arnold Vissière)를 대신하여 수석 통역관을 하였다.

1890년 5월 23일 프랑소와 게랭(François Guerin)의 뒤를 이어 북경에서 서울로 통역서기관으로 전속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서울에는 빨랑시가 유일한 외교관 동료이자 상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꾸랑은 13개월 동안 빨랑시와 함께 근무하면서 한국서지와 한국의 문화에

24)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2001. pp.230~1. 이세열, 「앞의 논문」, 2005. 재인용.

25) 모리스 꾸랑 原著, 李姬載 翻譯, 『앞의 책』, 1997. pp.765.

26) Henry Vivarez, *Mémoires et Communications -Vieux Papiers de Corée- Le Vieux Papier*, Come Premier, 1900~1902, Archéologique, Historique & Aptistique, 1903. pp.76~80.

대하여 전반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고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91년 6월 한국을 떠난 뵘랑시는 1895년 총영사겸 주한공사로 다시 서울에 와 1906년까지 머물면서 한국의 고서 등을 수집하여 1892년 3월 한국에 21개월 동안 체류했던 꾸랑에게 『한국서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 『한국서지』에 대해 더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했던 것은 뵘랑시였다.

꾸랑은 한국을 떠난 후에도 『한국서지』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은 구스타브 뤼텔(Gustave Mutel : 1854~1933)주교²⁷⁾였다. 21개월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였음에도 3,821종의 도서를 『한국서지』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뵘랑시와 뤼텔이 후에 보내준 각종 고서와 그에 대한 해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지』의 간행은 1891년 『조선문헌일람』으로 동양어학교 총서로서 파리의 어네스트 르루(Ernest Leroux)사에서 출판기로 예정되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1892년 3월 북경에 머무는 동안 『한국서지』의 작성은 부진했으나, 행정, 의례, 불교, 도교부분은 완성된 상태였으며, 1892년말 파리로 돌아와 다음해 1월 동양어학교 학장의 딸 엘렌느 셰페르(Hélène Schefer)와 결혼하여 반년정도 파리에 머물다가 동경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 무렵 그는 뤼텔에게 계속 한국에 관한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신은 일본 상야도서관과 증상사에 소장된 한국전적을 조사하였다. 1894년 동경의 인쇄소와 『한국서지』에 대한 인쇄 계약을 맺었다. 1895년 다시 천진으로 전속되어 두 아들을 콜레라로 잃었으며, 『한국서지』 2권은 프랑스로 보

내지고 3권의 인쇄도 진전되어 파리, 동경, 천진을 오가며 1, 2, 3차의 교정이 이루어져 1896년 파리로 귀국한 후에 3권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1901년에 뵘랑시가 1888년부터 1891년 사이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새로이 수집한 한국도서를 보유판으로 출판하였다.²⁸⁾

「직지」가 소개된 꾸랑의 『한국서지』 보유판의 출판 상황을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지난해 프랑스에 도착한 도서 중에 한국 인쇄사에 대한 가장 흥미 있는 것들은 조선관에서 만국박람회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들로 이 일련의 도서들이 거의 전부,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박람회를 전후하여 동양어학교에 기증되었으며 이는 현존하는 한국 장서로서는 가장 많은 양의 것이다. 폴랭 드 뵘랑시씨는 그가 가지고 온 이 책들에 대해 내게 검토할 것을 부탁하고, 내가 작성한 해제들을 동양어학교 출판물총서에 출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학사원 회원이자 동양어학교의 이사인 바르비에 드 메이나르(Barbier de Meynard)씨와 합의 했다.”²⁹⁾

위의 내용으로 보아 『한국서지』 보유판은 뵘랑시가 2차로 한국에 부임하여 수집한 자료를 만국박람회 한국관에 꾸랑에게 검토하도록 부탁하여 해제를 하고 동양어학교 출판물 총서로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꾸랑의 『한국서지』는 1894년부터 1896년까지 3,240종의 고서에 대한 1, 2, 3권이 서론, 교회부, 언어부, 유교부, 문목부, 의범부, 사서부, 기예부, 교문부, 교통부로 출판되고, 1901년 보유판이 출판되어 총 3,821종이 수록되었다.

꾸랑의 『한국서지』에 수록된 도서 가운데 「직

27) 한국교회사연구소, 『뤼텔주교일기 1~6』, 1986.

28) 李姬載, 「모리스 꾸랑과 韓國書誌에 관한 考察」 『淑明女子大學校 論文集』 제28집, 숙명여자대학교, 1988. pp.325~329.

29) 모리스 꾸랑 原著, 李姬載 翻譯, 『앞의 책』 1997. pp.765.

지」는 1901년에 간행한 보유판에 소개되었는데 그 번호가 3738번으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38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1책. 대 8절판(제2권만 있음). C.P.³⁰, B.N. Coréen 109³¹)

이 책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적고 있다. “1377년 청주목의 흥덕사에서 주조된 활자로 인쇄됨.” 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주자, 즉 활자는 활자의 발명을 공적으로 삼는 조선시대 태종의 명(n° 1673)보다 26년가량 앞서 사용된 것이다. 그 외에도 선광 7년이라고 쓴 연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선광이라는 통치연대의 명칭은 1371년 원조의 왕위계승을 요구하는 소종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³²)

라고 기술하였다.

「직지」에 대하여 꾸량은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한국서지』 보유판 머리말에 꾸량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n° 3738³³)은 호기심을 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太宗은 1403년의 칙령(n° 1673³⁴)에서 그 이래로 자주 사용된 銅活字의 발명을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책은 활자로 1377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종이 그의 재위 20여년도 전에 적용되었던 개념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 했던 것일까? 이 상반되는 사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차후에 의외의 발견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즉, 꾸량은 『주자사실』에 근거하여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서지』는 서론 부분이 1912년 아사미(淺見倫太郎)에 의해 『조선예문지』란 제목으로 일어로 번역³⁶)되고, 1936년 매시 로이즈(Massy Royds)에 의해 ‘왕립아세아협회 조선지부 회보’ 제25권에 英譯³⁷)되었다. 다시 이 영문 번역으로부터 1940년에는 오구라(小倉龍雄)에 의해 『조선서지서론』이란 제목으로 일중역³⁸)되어 잡지 『조선』에 연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서론 부분이 1946년에 김수경에 의해 『조선문화사서설』이란 제목으로 한글로 번역³⁹)되었으며, 1974년에 박상

30) C. P.는 Collin de Plance, B. N.은 Bibliotheque Nitionale 소장자를 의미 한다.

31) 저자인 꾸량은 당시 빨랑시가 소장하고 있었으므로 C. P.로 명기하였으나, 번역자는 번역 당시 소장처를 확인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명기하였다.

32) 3738 Pâik oun hoa syang tchyo rok poul tjo tjik tji sim htyei yo tjyel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Traits edifiants des patriarches rassembles par le bonze Paik-oun. 1vol. grand in-8°(2° livre seul). (C. P.)B.N. Coreen 109.

Ce volume porte a la fin l'indication suivante : En 1377, a la bonzerie de Heung-tek興德, hors [du chef-lieu] du district de Tchyeng-tjyou清州, imprime a l'aide de caracteres fondus. Si cette indication est exacte, les caracteres fondus, c'est-a-dire mobiles, auraient ete en usage vingt-six ans avant le decret du roi Htai-tjong太宗(n. 1673), qui se fait gloire de l'invention des types mobiles. Il faut en outre remarquer la date: elle est ecrite: 7° annee de SIEUN-KOANG宣光; ce nom de regne l'ut adopte en 1371 par TCHAO-TSONG 昭宗, pretendant de la famille des YUEN元.

원문은李世烈, 「앞의 논문」, 2006.에서 재인용하였으며, 번역문은 모리스 꾸량 原著, 李姬載 翻譯, 『앞의 책』 1997. p.847 참조.

33) n° 3738은 『한국서지』의 게재번호로 「직지」를 뜻한다.

34) n° 1673은 『한국서지』의 게재번호로 『鑄字事實』을 뜻한다.

“太宗 3年, 癸未 1403년 임금은 다음과 같은 승을 내렸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도서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다 건너 동쪽에 위치하여 중국의 책이 희귀하고 목판은 쉽게 마모될 뿐 아니라 모든 도서를 일일이 雕刻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는 銅으로서 活字를 鑄造하여 책을 인출함으로써 도서를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文獻備考, 跋文) 同年, 詩經, 書經, 左傳에서 글자를 선택하여 銅活字 10만자를 주조했으며, 주조를 지휘했던 權近은 활자 발명의 배경과 당시 그것으로 인쇄된 도서들과 관련된 발문을 적었다.” 모리스 꾸량 原著, 李姬載 翻譯, 『앞의 책』 1997. p.411.

35) 모리스 꾸량 原著, 李姬載 翻譯, 『앞의 책』 1997. pp.766~1.

36) 淺見倫太郎 譯, 『朝鮮藝文誌』, 京城, 朝鮮總督府, 1912.

37) W. Massy Royds, *Introduction to Courant's Bibliographie Coréenne, trans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 X V, 1936.

38) 小倉龍雄 譯, 「朝鮮書誌序論」, 『讀書』, 1938.

규에 의해 『한국의 서지와 문화』로 한글로 번역되었다. 박상규는 서론을 번역하고,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서지』의 책 목록을 1번 反切부터 3821번 상무총보까지 부록으로 소개하였다.⁴⁰⁾ 최근에 이희재 교수에 의해 『한국서지』가 1994년에 완역하였으며, 1997년에 수정번역판이 출판되었다.⁴¹⁾

꾸랑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면서 중국, 일본, 한국 서적을 분류, 정리한 다음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가 작성한 중국, 한국, 일본 서적 목록은 1902년~1903년 7권의 소책자로 간행되었고, 제8권은 1912년에 간행되었다.⁴²⁾ 이 도서 목록에 한국도 들어 있지만, 한국본은 이미 간행된 『한국서지』에 망라되어 있으므로 이 도서 목록에는 빠져 있다.

2.4 Drouot 경매와 H. Vever의 소장

뵐랑시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근무지인 중국, 한국, 일본, 방콕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하고, 일부는 소장하고 있다가 1911년 3월 27~30일까지 4일 동안에 걸쳐 883종을 두루오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였다. 이 중에 한국의 것이 700여종에 달했다.

뵐랑시는 경매 카탈로그의 서문에 “구텐베르크가 유럽에 그의 경이로운 발명을 주기 훨씬 전에 한국이 금속 인쇄술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홍보하였다. 경매 카탈로그 중 711~787번은 책이

고, 788~789번은 판화, 790~798번은 지도였다. 그 외에 초상화, 향로, 식기 등의 동제품과 금속제품, 목제품, 칠기, 자개, 보석, 부채, 병풍, 비단, 가구와 동전 2,500개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매에 나온 책들은 모두 꾸랑이 1901년에 출판한 『한국서지』 보유판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경매품 가운데 책들은 대부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였으나,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하지 않고 앙리 베베르가 180프랑에 구입하였다.⁴³⁾

베베르는 1854년에 프랑스의 메즈에서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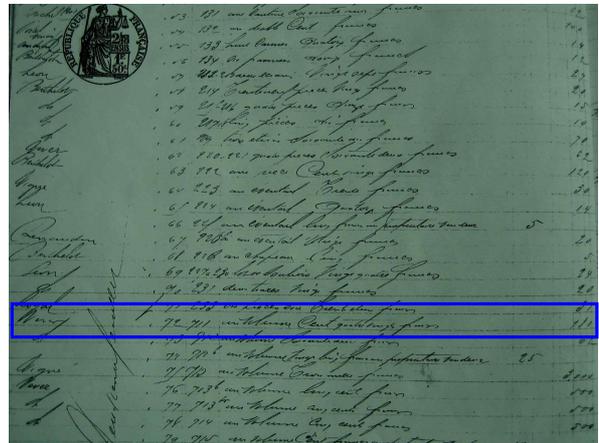


사진 7. 「직지」 경매기록부(파리시립고문서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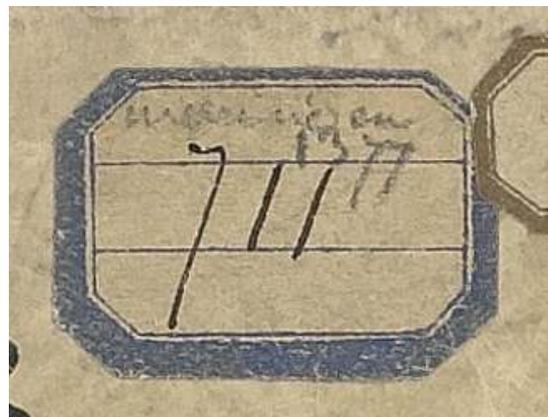


사진 8. 「직지」 경매 번호

39) 모리스·쿠-랑 著 金壽卿 譯, 『朝鮮文化史序說』, 凡章閣, 1946.
 40) 모리스 쿠랑 著 朴相圭 譯, 『韓國의 書誌와 文化』, 新丘文化社, 1974
 41) 모리스 꾸랑 原著, 李姬載 翻譯, 『앞의 책』 1997.
 42) Maurice Courant, *Catalogue des Livres Chinois, Coréens, Japonais, etc.* 7 Fascicules, Département des Manuscrits, Bibliothèque Nationale, Paris, E. Leroux, 1902, 1907, 8 Fascicules, 1912. 이진명, 「앞의 논문」, 2003. p.188. 재인용.

43) 파리시립고문서실, 문서번호 D-60E3-83번 '경매기록' 참조.

집안에 태어났다. 아버지 Jean-Jacque Ernest Vever가 1881년에 메이슨 회사를 은퇴함에 따라 그의 형 폴과 함께 보석회사인 메이슨 베베르(Maison Vever)를 경영하였다. 1881년부터 1921년 은퇴할 때까지 예술품 수집가로서 그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예술품들을 무척 많이 모았다. 보석상으로서 예술품 수집가로서 작가로서, 그는 20세기 예술사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

1870년의 프러시아 전쟁 당시 메츠가 독일군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그는 그의 가족들을 룩셈부르크로 옮기고 일년후 파리에 보석가게를 내고 메이슨 베베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92년 베베르는 Les Amis de l'Art Japonais에 가입했는데, 그곳은 일본예술에 대해 의논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모임이었다. 그는 다양한 예술품을 가졌고 종종 세계를 통해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회를 위해 물품들을 빌려주었다.

그는 1921년 은퇴했고, 폴의 아들인 앙드레와 피에르가 가게를 맡았다. 베베르는 Noyer에 있는 사유지에서 1943년에 사망하였다.⁴⁴⁾



사진 9. H. Vever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손자 모탱(François Mautin)이 「직지」와 『육조법보단경』을 195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의 간지상단 오른 쪽에는 “COLLECTION H. VEVER”의 장서표가 있으며, 후에 파란 펜글씨로 Paris 1911~1943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베베르가 「직지」를 소장하고 있었던 기간은 1911년부터 1943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0. H. Vever 장서표

3.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과 전시

3.1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서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가져가 당시의 황립도서관(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넘겨준 자료와 주한 프랑스공사 뽐랑시가 2차 한국에 부임하여 수집한 것이다. 그 외에도 프랑스 동양학자 폴 펠리오(Paul Pelliot : 1878~1945)가 1907~1908년 중국 감숙성 돈황 명사산 천불동의 석실에서 발굴하여 프랑스로 가져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헤초(704~787)의 『왕오천축국전』⁴⁵⁾이 소장되어 있다.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는 꾸랑의 『한국서지』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1866년 프랑스 해군이 작성한 목록과 비교하여 재구성하면, 아래 표

45) 이 자료는 727년에 지은 것으로 크기는 29×353cm로 두루마리 형태이며, BN Ms., Pelliot chinois 3532번이다. 8세기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44) http://www.asia.si.edu/archives/finding_aids/vever.html
참조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⁴⁶⁾

書名	種類	數量	圖書番號	備考
儀軌 ⁴⁷⁾	191	297권	Mss or. Coréen 2402~2697, 2434, 2493	1970년대 1권 구입, 하여 총 298권
璿源系譜記略	1	3권	Mss or. Coréen 2124	양장 1권
列聖御製	3	26권	Mss or. Coréen 2125~2134	양장 10권
列聖御製編	1	2권	Mss or. Coréen 2135	양장 1권
列聖御製目錄	1	2권	Mss or. Coréen 2136	양장 1권
論語集註	1	2권	Mss or. Coréen 2140	양장 1권
楓臯集	1	8권	Mss or. Coréen 2137-2139	양장 3권
王伴 天下輿地圖	1	1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도 도면부 Rés. Ge A 1120	
天象列次分野地圖	1	1	Mss or. Coréen 3470	
족자	7	7점	Mss or. Coréen 3476~3482	

와 같다.

위의 도서들은 1890년대에 이미 분류와 도서번호의 부여 등 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이 도서번호가 꾸량의 『한국서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뵐랑시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수집한 고서들 가운데 833점이 드루오경매장에서 1911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에 걸쳐 경매에 붙여진다. 이때 주류를 이루는 것은 700여점에 달하는 한국 것이었다. 경매에 나온 책들은 모두 꾸량의 『한국서지』 보유판에 수록된 것으로 경매 카탈로그 711번부터 787번까지 77종이 책이었고, 788번부터 789번까지는 판화, 790번부터 798번까지는 지도책 또는 지도였다. 이들은 모두 1911년 3월 27일에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들 책 가운데 값이 비싼 몇 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에도 몇 점의 그림과 하회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

다.⁴⁸⁾ 이 때 구입한 책은 모두 뵐랑시의 장서표인 ‘葛’자가 붙어 있는데, 새로 한국본 장서의 도서번호가 시작되어 110번까지가 고서이고, 111번부터는 한국 현대 서적들이다. 도서대장에는 경매 카탈로그 번호와 함께 뵐랑시의 약자인 C. P.라 명기 되어 있으며, 꾸량의 『한국서지』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뵐랑시 경매 구입품은 1~72번이 고서로 모두 80권이다. 1번은 1444년에 간행한 『소학집성』이며, 72번은 1905년에 간행한 『대한형법』이다. 73~102번은 지리서적과 지도이고, 103~108번은 중국과 한국의 왕조도표, 달력, 한글 반절표, 삼재부 등이다.

109번과 110번은 귀중한 책인데, 1911년 경매 당시 베베르가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1943년 그의 사망 후 유언에 따라 상속인 모탕이 195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것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서번호 109번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로 현존 세계에서

46) 이진명, 「앞의 논문」, 2003, PP.189~1.

47) 의례 297권 중 1권인 「徽慶園園所都監儀軌」 상권(Mss or, coréen 2495)은 1993년 9월 15일 미테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48) 파리시립 고문서실, 문서번호 D-60E3-83번 ‘경매기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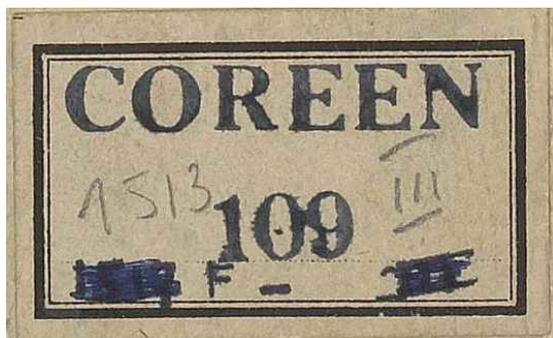


사진 11.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서번호(한국 109)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꾸랑의 『한국서지』 3738번이며, 1911년 경매시 경매번호 711번으로 베베르가 180프랑에 구입하였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된 책으로 기증번호는 9832번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서번호 110번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377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꾸랑의 『한국서지』 3730번이며, 1911년 경매시 경매번호 712번으로 베베르가 62프랑에 구입하였다가 「직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된 책으로 기증번호는 9833번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뽐랑시는 「직지」를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도 아주 중요한 책으로 전시하였고, 1901년 꾸랑의 『한국서지』에도 자세히 소개 되었다. 특히 경매 당시 제작한 카탈로그에도 「직지」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였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뽐랑시의 경매 카탈로그를 보면, 한국고서 80여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약 45종을 구입하면서 1,544프랑을 지불했다. 가장 비싼 것은 『오경백편』으로 135프랑에 구입하였으며, 가장 싼 것은 『척사륜음』으로 3프랑에 구입하였다.

아마도 경매 당시에 뽐랑시가 카탈로그의 서문에 “구텐베르크가 유럽에 그의 경이로운 발명을 주기 훨씬 전에 한국이 금속 인쇄술을 알고 있었

다”고 하면서 주위를 끌었으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경매 입찰자들이 구입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직지」의 가치를 몰랐거나, 아니면 꾸랑이 『한국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금속활자의 발명이 태종의 명에 의해 1403년인데,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당연히 구입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 경매기록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카탈로그를 보면, “1377년 한국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3.2 1972년 “책” 전시

1972년은 UNESCO가 정한 제1회 ‘세계 도서의 해(L’Année Internationale du Livre)’였다.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소장본 중에서 동서양의 책 가운데 귀중본을 엄선하여 도서관 전시실에서 1972년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반 동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프랑스에서 있었던 책 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였다. 이 전시회를 소개하기 위한 도록을 발간하였다.⁴⁹⁾ 이 도록에 의하면, 한국 자료는 「직지」⁵⁰⁾와 『경국대전』⁵¹⁾, 『여지도』⁵²⁾ 등 모두 3점이 전시되었다.

49)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1972년 5월15일에 발간한 도록에는 총 718점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Bibliothèque Nationale, LE LIVRE*, Paris, 1972.

50) 도록 번호 42. *Jik ji sim kyông*. *Bibliothèque Nationale, LE LIVRE*, Paris, 1972. p.13.

51) 도록 번호 43. *Kyong kuk dae jon*. 『경국대전』은 설명과 함께 사진도 수록하였다. 아마도 도록 간행시 「직지」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책을 더 중요시하여 사진까지 수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Bibliothèque Nationale, LE LIVRE, Paris, 1972. p.13.

52) 도록 번호 51. *Yo ji do*. *Bibliothèque Nationale, LE LIVRE*,

에티엔느 덴느리(Étienne Denner) 당시 국립 도서관 관장은 이 도록의 서문에서 전시된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기원전 2000년에 파피루스에 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부터 시작하여 흑해에서 발견된 성서의 片, 마야의 텍스트, 그 다음은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인쇄술이 한국에 전달되어 3세기 동안 발전을 거듭하였고,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 1400~1468)보다 수 십년 앞서 금속활자를 다룰 줄 아는 놀라운 기술에 도달했다”⁵³⁾

또한, 당시 프랑스 국영 제1TV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가가 아닙니다. 자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직지」) 한국의 흥덕사라는 절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입니다. 구텐베르크 발명보다 78년 앞섭니다. 우리는 금속활자의 영광을 이제 동양의 한 나라(한국)에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⁵⁴⁾

그리고 7월 19일자 르몽드(Le Monde)지에는 “구텐베르크의 혁명”이란 제목으로

“국립도서관의 방대한 장서 가운데 나온 금속활자로 인쇄된 한국 책들 가운데 한권은 그 연대가 1377년이다. 그런데 유럽 최초의 위대한 책은 구텐베르크의 라틴어 성경으로 연대는 1455년이다. 구텐베르크의 책 중 한권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경탄을 자아내는데 고딕체 글씨의 우아함, 새것 같은 흰 종이가 놀랍다. 요한 구텐베르크가 완벽에 도달했음을 첫 눈에 알 수 있다. ……”⁵⁵⁾

Paris, 1972. p.16.

53) Bibliotheque Nitonale, LE LIVRE, Paris, 1972. Préface 참조.

이진명, 『앞의 논문』, 2003. pp.197~1. 재인용.

54) 프랑스 제1방송(TF1, 1972. 6. 1) 루이 두세 기자 리포트. 남윤성, 『앞의 방송』, 2006년 7월 31일 방송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제작한 전시 도록 “LE LIVRE”의 제3장 ‘극동의 인쇄술’에는

“11세기 초부터 책 형태의 변형과 함께 활자 인쇄술이 출현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 책은 15세기말이다. 따라서 한국보다 늦다. 한국에서는 13세기에 금속활자가 최초로 사용되었고, 목활자는 14세기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활자를 사용한 인쇄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반화되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목판 인쇄가 중요한 책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다.”⁵⁶⁾

즉, 활자 인쇄술은 11세기 초에 출현하였고, 한국에서는 13세기에 금속활자 인쇄가 최초로 사용되고, 중국은 15세기말에 사용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도록에서 「직지」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42. 직지심경, 한국. 1377년. 1권38장, 246×170 mm

한국도서 109

백운(14세기)이라는 수도승에 의해 수집된 불교 승려 교육 교본.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됨.”⁵⁷⁾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 책의 해’ 전시에서 「직지」에 대하여 학계와 언론에서 높이 평가한 반면, 도록에는 오히려 「직지」의 경우 내용이 간

55) Le Monde 1972년 7월 19일자. 이진명, 『앞의 논문』, 2003. pp.199. 재인용.

56) Bibliotheque Nitonale, LE LIVRE, Paris, 1972. p.12.

57) 42. Jik ji sim kyông. Corée. 1377. 1 volume 38ff., 246×170 mm. B.N., Mss., coréen 109 Traits édifiants des patriarches bouddhiques, rassemblés par le moine Paek-Un(14^e siècle). Gravé en caractères mobiles métalliques au monastère de Hung-dok en 1377.

Bibliotheque Nitonale, LE LIVRE, Paris, 1972. p.13.

단하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사진까지 게재한 것으로 보아 「직지」보다 『경국대전』에 가치를 더 편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시 담당자가 1972년까지만 해도 금속활자본 「직지」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3.3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1973년에는 프랑스 동양학회 창립 100주년을로 제29회 동양학 국제 학술대회를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이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1973년 6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동양의 보물”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1973년 6월 12일에 간행한 도록을 보면, 총 521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한국의 자료는 여지도를 비롯하여 21점이 수록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집트에서부터 한국까지 즉, 중동에서 극동에 이르는 여러 나라의 귀중한 책들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 도록으로 『동양의 보물』에서는 한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3세기부터 새로운 기술이 고려에 도입된다. 즉, 11세기에 중국에서 발명된 활자들을 이용하여 발전시킨 인쇄가 바로 그것이다. 인쇄술은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였으며 유럽(독일)을 앞서갔다.

한문으로 간행된 한국의 고서에서는 중국 고서와 구별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표지는 황색에 능화무늬로 되어있다. 책의 본문은 청색이나 초록색, 또는 붉은색 실로 꿰맨 오침안정법으로 제본되었다. 한지로 된 두터운 표지색은 상아색(누르스름한 색)이다. 중국본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어미(魚尾)도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의 고서에서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⁵⁸⁾

또한, 「직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491 직지심경. -한국 1377- 1권 38장 246×170mm B.N.(프랑스 국립도서관) 한국109

백운(14세기)이라는 수도승에 의한 «선»의 정신으로 쓰여진 불경. 1377년 청주(서울 남쪽)지방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됨(대부분). 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일 것임. 한국에서 최초의 금속활자 사용은 12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인쇄본은 «상정예문»일 것이나 불행이도 어떤 인쇄본도 남아 있지 않다.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서울, 1971.⁵⁹⁾

1973년 전시에는 한국자료에 대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풍부해진 것으로 보인다. 전시자료 472번 『여지도』부터 492번 『생생자보』까지 20점이 있었다. 이 중에는 해초의 『왕오천축국전』과 「직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직지」의 마지막장 간기 부분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1972년에 전시회가 개최된 이후 「직지」의 흑백사진 자료가 국내에 입수되어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맺는 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의 시자인 석찬과 달담이 비구니 묘덕의 시주를 받아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퍼기 위해 금속활자로 1377년 7월에 「직지」를 간행하였다. 또한, 여주 취암사에서 법린, 자명, 혜전 등이 목판으로 1378년 6월에 「직지」를 간행하였다.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는 조선초에 불복장되었다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전란이나 개금불사 등으로 노출되었고, 1613년에 송노

58) BIBLIOTHÈQUE NATIONALE, *TRÉSORS D'ORIENT*, PARIS, 1973.

59) BIBLIOTHÈQUE NATIONALE, *TRÉSORS D'ORIENT*, PARIS, 1973.

업에 의해 필사되었다. 그 후에 송노업의 필사본이 불복장되고, 홍덕사본은 18세기경에 첫째장이 떨어져 없어진 상태로 표지를 다시 만들어 전해지다가 19세기 중반에 개항되면서 주한 프랑스 공사인 뽐랑시에 의해 1896년에서 1899년 사이에 수집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로 가져가 1900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에 전시됨으로써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꾸랑에 의해 1901년에 간행된 『한국서지』 보유판 게재되었다. 뽐랑시가 수집한 고서들은 대부분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하였으나,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집한 자료 883종은 1911년 3월 27~30일 사이에 드루오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진다. 그 가운데 한국 것이 700여종에 달하는데, 대부분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일부는 개인 소장가가 구입하였다. 경매품 가운데 「직지」는 180프랑에 베베르에게 경매되었다.

베베르가 1911년부터 1943년까지 소장하였다가 사망하면서 유언에 따라 상속자인 손자 마탱(François Mautin)이 「직지」와 『육조법보단경』을 195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였다. 따라서 1952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1972년 UNESCO가 정한 제1회 '세계 도서의 해'를 맞이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한국자료는 「직지」를 비롯한 『경국대전』과 『여지도』를 전시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그 동안 몰랐던 「직지」의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2년에 박병선으로부터 흑백사진을 구입하여 1973년에 영인본을 발간함에 따라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73년 제29회 동양학 국제학술대회 개최시 '동양의 보물'이란 주제로 6월부터 10월까지 전시회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는 「직지」를 비롯

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등 한국 자료 20여점이 전시되었다.

참 고 문 헌

- [1] 白雲和尚,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프랑스 국립도서관, Coreen 109.
- [2] 白雲和尚,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藏書閣 所藏本.
- [3] 국사편찬위원회, 프랑스 한국연구회편, 『한-불 수교 120주년기념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6.
- [4] 김기태, 「「直指心經」의 存續經緯에 대한 研究」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9집 제1호, 1995.
- [5] 김기태, 「「直指心經」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Vol 15, 인천교육대학교, 1998.
- [6] 남윤성, 『창사 36주년 다큐멘터리 -직지의 최초 발견자 콜랭 드 플랑시-』, 청주MBC, 2006.
- [7] 다니엘 부세, 「韓國學의 先驅者 모리스 꾸랑(상, 하)」 『東方學志』 제51집, 제52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6, 1987.
- [8] 모리스 꾸랑 原著, 李姬載 翻譯, 『韓國書誌 - 修正翻譯版 - 』, 一潮閣, 1997.
- [9] 嚴淑瓊, 『19세기末 在韓 프랑스 외교관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에 대한 고찰』 慶星大學校 大學院, 1999.
- [10] 李世烈, 『《直指》가 프랑스로 간 經緯에 대한 考究』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05.
- [11]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제2집, 한국국학진흥원, 2003.
- [12] 李姬載, 「모리스·꾸랑과 韓國書誌에 관한 考察」 『淑明女子大學校 論文集』 第28輯, 1988.
- [13]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 『서울의 추억 - 한/불 1886~1905 -』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전시 심포지엄논문집, 2006.
- [14] 黃正夏,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直指의 傳存 經緯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所藏을 중심으로-」 『古印刷文化』 第13輯, 淸州古印刷博物館, 2006.
- [15] BIBLIOTHEQUE NATIONALE, *LE LIVRE*, PARIS, 1972.

- [16] BIBLIOTHÈQUE NATIONALE, *TRÉSORS D'ORIENT*, PARIS, 1973.
- [17] H. Richard, *FORT COMME PLANCY ENTOURÉ DE ROSEAUX*, De Plancus à Plancy-L'Abbaye, 2004.
- [18]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Supplement*, Paris, Ernest Leroux, 1901.
- [19] Byeng-sen PARK, *Caractères mobiles de L'imprimerie ancienne coréenne*, XXIXe CONGRÈS INTERNATIONAL DES ORIENTALISTES, Paris, 1976.



황 정 하

- 1985년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 1988년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사학과, 한국사 전공)
- 1991년~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2008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과학학과, 과학사 전공)
- 청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서원대학교 강사